

#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대학명	광서사범대학교	기숙사비	2500위안/한 학기
파견지역	계림(구이린)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분할납부( )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7년2학기	기타비용	전기세,뜨거운물나오는 카드,기숙사비 보증금(600위안-나중에 돌려줌)

## ▣ 파견자 정보

성명		학과	국제통상학과
성별		학년	3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8 . 01 . 18

파견자 : ( 서 명)

# 대학 현황 보고서

##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광서사범대 교육과정은 우리학교처럼 오는 교환학생들과 자비를 내고 그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로 나뉘는데 교환 학생들의 학교들마다 조금씩 제도가 달라서 어쨌든 우리학교는 유학원 본과생 소속이다. 그래서 우리학교가 교환학생 대표로써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참여하게 되는 편이었다.

수업방식은 듣기,읽기,말하기,종합 그리고 쓰기 수업까지(이건 자유) 4과목은 필수로 들을 수 있게 되고 시간은 9:30-12:00 오전수업 , 2:30-5:00 오후수업으로 진행된다. 짝 채워 수업하지는 않고 선생님들마다 여유롭게 진행되는 편이다. 그리고 수업해주는 선생님은 광서 사범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이 우리를 가르쳐준다. (모든 수업이 그런건 아니었지만 대부분) 수업과제는 매일매일 숙제가 있는 편으로 자기 혼자 연습 복습하기에는 충분한 양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교실의자가 불편해서 나는 타오바오에서 방석을 구매해서 가지고 다녔는데 아주 딱딱한 나무로 되어 있어서 책상 의자가 매우 불편하다..원래는 에어컨 겸 히터도 없어서 한여름에 진짜 고생했는데 우리가 건의를 드렸더니 학기가 끝날 때 즈음에 에어컨이 생겨서 다음 학기 파견자들부터는 괜찮을 것 같다.

##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기숙사는 유학생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 수업듣는 건물은 약간 끝과 끝이라서 많이 걷기는 해야한다. 10분정도 걸린다. 대부분 친구들은 전동오토바이를 구매해서 타고 다녔는데 나는 전동오토바이가 없어도 무리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다. 평소에 다닐 때에는 시내 나가는 버스도 잘되어있는 편이었고 계림은 물가가 정말 싸서 버스비도 정말 싸다.(1원 2원) 택시비도 싸다. 굳이 오토바이 없이도 다닐 수 있다.

날씨는 9월에 갔을 때는 진짜 더웠고 10월 중순 되어서야 날이 점점 시원해졌다. 여름이 길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약간 많이 춥게 느껴져서 당황할 수 있지만 겨울은 한국보다는 안춥고 비오는 흐린 날에는 해가 안떠서 그런 날만 조금 춥다. 패딩을 가져 갈지 말지 고민했었는데 패딩 가져 가지 않고 가서 타오바오에서 하나 구매하여 입고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두세겹 껴입으면 지낼만한 정도!)

주변 시설은 한국처럼 편의점은 없고 기숙사 바로 밑에 슈퍼들이 쭉 있어서 거기서 먹을 것들을 바로 살 수 있다. 은행도 바로 밑에 있고 휴대폰은 처음에 가면 유심을 사고 데이터 충전을 한달마다 한다. 그것도 기숙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리고 이번 학기 끝날 때쯤에 방마다 와이파이를 드디어 달아줘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인터넷도 잘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택배를 부모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물건이 너무 많거나 하면 안에 물건이 화장품같은게 있거나 하면 세관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 한국 돌아올때까지 못받았다. 택배는 추천하지 않고 가서 다 사거나 갈 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정보

비 용	2500위안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통금시간도 없고 아주 자유로운 편이다. 밤늦게 소란스럽게만 안하면 된다.		
주요사항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2인이 사용하기에 딱 적절한 크기인 방이다.  
책상2개 아니면 3개에 위 천장에 서랍도 있고  
수납공간은 넉넉한 편이다.  
침대에는 매트리스는 없지만 학교 문앞에 나가면  
이불도 다 팔고 밑에 깔만한 매트리스도  
다 팔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화장실은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사진에는  
없지만 샤워기가 있다.  
샤워기는 호스가 없이 위에서 물만 내려오는  
샤워기라서 샤워기필터를 사갔지만  
딱히 불편하지 않아서 갈아 끼우지  
않았지만 호스를 따로 사기도 귀찮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구매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바로 뜨거운물이 나오기 때문에  
온수카드를 구매해서 충전해서 쓰는 식이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우리가 수업을 직접 듣는 교실 사진이다.  
개인적으로 나무 책상과 인자가 많이 불편해서  
타오비오에서 방석 구매해서 썼더니  
앉아있을만 했다.



여기는 교실 밖 복도이다.  
우리가 쓰는 교실은 3층이다.  
엘리베이터는 없다.



여기는 기숙사 1층로비를 나가면  
있는 식당 입구인데 학식처럼 먹으려면  
카드가 있어야하고 주로 흰 쌀밥에 반찬  
먹고 싶을때 이용했다. (포장도 가능해서  
밥먹으러 나가기 귀찮을때 사서 기숙사 올라  
가서 포장해서 먹곤했다.)

## 교환학생 파견 수기

사실 해외여행은 많이 다녀봤어도 외국에 살아보는 경험은 이번 교환학생이 처음이었다. 가기 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선진국도 아니고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가서 살아보니 정말 우리나라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좋은 물건, 좋은 시설들도 많았다.

그리고 언어를 현지에서 배운다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오늘 배운 단어를 중국인에게 말했을 때 대화가 통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기억에 더 잘 남고 내거로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뿌듯했다. 비록 교환학생의 처음 목표는 중국어 공부를 하러 갔지만 정말 계림에서는 공부보다도 힐링을 했다. 계림산수천하제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기숙사 창문 밖만 봐도 산이 보이고 맑은 하늘을 보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중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조금은 지루하고 별일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그 속에서 한국에서는 잘 하지 않던 등산도 하고 공원도 주변에 많아서 공원 산책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가장 즐길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수업 외에는 우리는 유학원 소속이라 자비생으로 오는 학생들보다 더 중국인친구들을 만나는 기회나 이어주는 프로그램도 더 기회가 많았다. 우리 캠퍼스에는 중국인 학생들보다는 유학생들 위주의 캠퍼스이고 계림 안에 우리 학교 캠퍼스가 무려 3개나 있다. 그 중 옌산 캠퍼스라고 엄청 큰 캠퍼스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2학기에 있었던 국경절(중국의 큰 명절인 중추절, 추석)행사도 하고 그 캠퍼스에 다니는 중국인 학생들과도 좋은 추억을 쌓았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계림에서 2시간 걸리는 양수오라는 도시에도 여행을 데려가주었다. 양쉬는 계림과는 다르게(?) 더 발달된 관광지로 예쁜 곳도 많아서 꼭 한번 가볼만한 도시이다. 계림에서 2시간 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이니 가보면 좋을 것 같다.

중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한곳에 모여 중국어로 소통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사귄 수 있게 되는 것이 너무 좋았다.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또 한 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어졌고 성장한 기분이 들어 앞으로도 중국어를 끊임없이 공부해 나갈 것이며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다.